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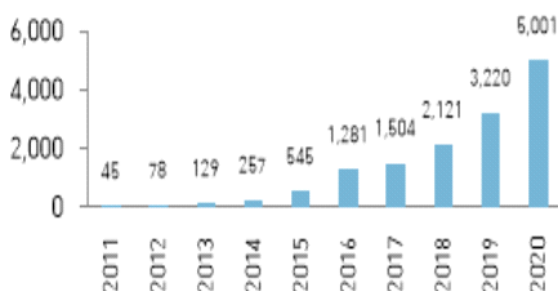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기업을 비롯한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로 인해 기업의 사이버 보안 위험성이 확대되면서 사이버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일본 보험회사들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손해를 관리를 위해 사이버 공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대응 훈련 서비스, 예상되는 사이버 피해에 대한 진단 등 사전적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일본에서는 기업을 비롯한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이버 공격의 대상도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일본 국책 사이버 보안 연구소에 따르면 기업을 포함한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는 2020년 5,001억 건으로 2019년에 3,220억 건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사이버 공격은 매해 증가 추세에 있음¹⁾
- 2022년 3월 일본 민간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일본 기업 사이버 공격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28.4%가 최근 1개월 이내에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1년 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6.1%에 달함²⁾
-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의 대상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각 기업들의 보안 점검 및 대응 강화를 촉구함³⁾

〈그림 1〉 일본 연간 관측 사이버 공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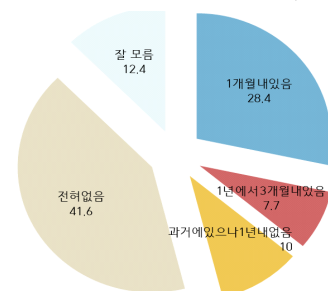
(단위: 억 건)



자료: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2021. 2)

〈그림 2〉 일본 기업 사이버 공격 유무

(단위: %)



자료: 帝国データバンク(2022. 3)

1)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NICTER 관측 리포트 2020”(https://www.nict.go.jp/press/2021/02/16-1.html)
 2) 帝国データバンク(2022. 3. 15), “サイバー攻撃に関する実態アンケート”
 3) 일본 경제산업성, 사이버 보안 정책 관련 일람(https://www.meti.go.jp/policy/netsecurity/index.html)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로 인해 기업의 사이버 보안 위험이 확대되면서 사이버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사이버 리스크 의식·대책 실태 조사 2020’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시스템상의 보안 대책을 실시하더라도 ‘완전히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신용 향상’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험 가입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⁴⁾
- 2019년 14.6%, 2020년 16.8%였던 일본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26%로, 전년 대비 9.2%p 증가함⁵⁾

○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사이버 리스크 의식·대책 실태 조사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 중 대기업은 53.9%, 중소기업은 62.7%로 나타남
-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 중 대기업은 35.3%, 중소기업은 64.1%가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위기의식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및 종사원들은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는 상황이며, 사이버 공격 발생 관련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르는 경우도 있음

○ 한편 일본 보험회사들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손해율 관리를 위해 사이버 공격 피해 방지 관련 사전 대응 훈련 서비스, 예상되는 사이버 공격 피해에 대한 진단 등 사전적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도쿄해상은 보험에 의한 사이버 리스크 보장과는 별도로 자사 사이버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리스크 벤치마크 리포트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음
 - 사이버 리스크 벤치마크 리포트는 재산 및 손해 보험회사를 위한 산업 플랫폼을 제공하는 미국 가이드 와이어의 노하우를 활용해 일본 기업이 노출되는 사이버 리스크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업계 내에서 벤치마킹하여 이용할 수 있는 리포트임
- 손포재팬은 신용카드 온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웹 트래픽 감시 및 해킹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격차단군’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서비스와 제휴해 사이버 공격 사전 차단과 정보 유출 방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4)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007.000054306.html>

5) MS&ADインターリスク総研株式会社(2021. 3. 22), “第4回「企業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対策に関する実態調査」について”